

광주·전남 '공공분야 甲질' 20건 적발

소병훈 "단속과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광주·전남에서 최근 1년간 '공공분야 갑질'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5명이 검거됐고,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에 대한 공공분야 갑질 단속 결과 총 291건이 적발돼 708명이 검거됐다. 공공분야 갑질행위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

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광주는 4건에 7명이 검거됐다. 전남은 16건에 28명이 검거됐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특히 전남은 2018년 단속 당시 3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단속에서

13건으로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소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썰팅 진해서" 보행자 4명 덮친 운전자

24일 목포경찰서는 SUV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전자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56)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거리에는 야간에 점멸신호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에 구입한 중고차 앞유리 썰팅이 진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야간에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3터널 인근서 달리던 화물차 화재

25일 오전 1시8분쯤 장성 고창담양고속도로 장성3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차량 주행 중 타이어나 적재함에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브레이크 라이닝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 해상서 낚싯배 화재...인명 피해 없어

19명이 승선한 낚싯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없이 자체진화됐다. 2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6분경 여수시 삼산면 삼백도 동쪽 11km 앞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K호(승선원 19명)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장 A씨(58)의 신고를 받았다. 해경이 경비함정 3척과 해경구조대를 현장에 보낸 사이 선장 A씨는 선박에 보유 중인 이동식 소화기 5개를 이용, 발전기실 화재를 신속히 초기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 2명이 약간의 연기를 마셨으나 건강상 이상은 없었고, 선실 목재와 FRP 일부가 불에 탄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K호 발전기실 배기관이 과열되며 열이 단열재로 전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사 협박 20대 검거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하는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사에 "일본 영화를 개봉하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너의 이름은' 등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회사다.

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 강화, 축산농가 소독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제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농가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가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환경단체 "쓰레기 불법 투기, 진도군 고발할 것"

진도군이 바다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진도군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송준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도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환경운동단체와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의 선에서 그치지 않

을 것"이라며 "이번 행위를 쓰레기 불법투기로 규정하고 법률자문을 거쳐서 검찰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일 이번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에는 읍면 직원들과 일자리 계약직 인력, 초·중·고 학생들까지 동원됐다"며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특설무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는 약 30분 동안 가계해수욕

장 해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 정화의 날 행사가 열린 가게 해수욕장은 평소 주민들하고 어촌계가 나서 청소를 잘 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곳에 굳이 학생과 주민, 공무원 등 200명이나 일부러 참석해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광주·전남 15건

최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1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기사사안 및 단순질문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9건의 신고가 접수·처리됐고, 전남의 경우 5건의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지난 1월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동료교사의 성폭력을 신고한 뒤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고, 5월쯤에는 중학교 한 교사가 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